

# 사회발전이란 무엇인가?

박석훈

## 1 세 영역의 조화로운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세르주 라투슈(Serge Latouche)의 지적 이전부터, 경제 발전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와 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주장은 지속되어왔다. 국가, 사회, 개인 세 주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와 사회 환경을 함께 다루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작년 지급된 전국민 1차 재난 지원금은 약 14조 원이었으며, 세제 혜택을 보장해주었음에도 ‘자발적 기부금’은 287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0.2%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미래세대를 현재세대의 합리성에 포함될 수 있는가? 포괄적인 ‘발전’ 개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발전은 가능한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2 ‘사회발전=경제발전’은 부당한 명제인가?

국민의식조사 결과 개인의 건강, 가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요하지만 최우선순위는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각각 67.6%와 71.7%에 달한다. 또한, 사회발전을 위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1순위 응답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사회 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체계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역시 사회발전에 대한 인식은 경제발전에 치중되어있으며, 환경이나 국제협력 분야에는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은 당장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미래세대’의 문제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의 신화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

---

박석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e-mail: parksukhoon@snu.ac.kr

한국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구분점은 여전히 모호(ambiguous)하며, 더 큰 경제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보인다.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은 경제자본에 근거한다(Bourdieu, 1986). 꿈-자본이 “꿈을 꾸고 이를 유지하며 그것의 실현을 향해 나가는 능력의 총체”라면, 꿈-자본 역시 경제자본과 무관할 수 없다. 한국 사회 청년들이 제기하는 공정성 담론에서 ‘경제자본’을 제외할 수 있는가? 더 극단적으로, ‘경제자본’과 무관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가?

세르주 라트슈는 ‘발전에서 살아남기’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발전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것들에 연결된 기술을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서술하였다. 현재의 발전 모델을 포기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발전의 의미를 다시 묻는 작업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혹은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이 아닌 사회와 환경 (혹은 국제)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위 문장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구분되는 사회발전만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같다.

### 3 이질성 포착은 세대 내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정치적 기획 혹은 기성세대 관점에서 비롯된 세대 담론이 ‘청년’이라는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즉,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이 아니며, 자본-꿈-자본을 포함한-의 양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청년여성, 청년남성, 중년여성, 중년남성은 ‘기회가 되면 내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 이질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질성을 포착하고 취약성(pecarity)을 찾고 지원해주는 행위는 이질적인 정책을 수반한다. ‘청년적금통장’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4050 세대에도 그러한 기회를 달라는 댓글이었다. 나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나보다 몇 년 더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배타적 기회를 얻는다면 세대 내 갈등은 완화될 수 있는가? ‘세대 내 갈등’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그러한 취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러한 기반에는 무엇이 있을까?